

전남

장성향교, 전교 공적비 건립 갈등

집행부 "향교발전 공로 크다"... 일부 유림 "공론화 필요하다"

장성향교 유림들이 전임 전교(典校)의 공적비 건립을 놓고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18일 장성향교(전교 이상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체 유림 80명중 50여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36·37대 전교를 역임했던 전임 A전교가 향교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며 공적비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전임 A 전교가 재임중에 향교재산 보존 위원회를 구성해 유림회관을 신축한다는 명분으로 저당잡혀 있던 각종 향교명의를 재산해 법적소송을 통해 되찾는 등의 공로가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현 38대 이상용 전교 등 집행부는 전임 A전교의 공적비를 400여만원을 들여 주둔한 상태이다. 장성향교는 관련 예산으로 180만원을 성금으로 모금했으며 부족한 재원은 향교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유림들은 현 전교가 여론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일부 집행부'만이 참석한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전임 전교의 공적비를 세우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표 '장성 바르게살기운동 실천협회' 회장은 "공적비를 세우려면 원로 유림들의 자문을 받아 만인의 추앙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공론화 보존 위원회를 구성해 유림회관을 신축한다는 명분으로 저당잡혀 있던 각종 향교명의를 재산해 법적소송을 통해 되찾는 등의 공로가 있었다는 것."

김 회장은 "이 때문에 향교가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만큼 경내에 공적비를 건립하는 것이 문화재관리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를 밝혀달라며 유림 30여 명 등 125명의 연명으로 지난 9일 전남도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공적비 건립위치가 향교담장밖에 설치되는 만큼 문화재 형상변경의 허가는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림 내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문화재보존형상 여부 검토의견서를 전남도 문화재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용 전교는 "현재 향교입구에 9개의 공적비가 세워져 있으며 이 가운데 3개가 전임 전교들의 공적비로 생존해 있을 때 세운 것이다"며 "일부 유림의 반대에 화합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현재 상태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장성군이 관계전문가, 문화재 위원 등을 상대로 공적비 건립이 문화재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문화재 보호구역 밖에 공적비를 세우는 것은 만큼 문화재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문화재 보호구역 밖이라 전남도가 건립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典校)= 향교에서 제사와 교육을 담당하며 향교를 지키고 보존하는 총 관리자로 유림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이다. 유교를 부흥·발전시켜온 공자와 제자, 우리나라 현인들에 대한 제사를 주도로 지낸다.

한편 장성군 장성을 성산리에 위치한 장성향교는 지난 1985년 전남유형문화재 제 105호로 지정됐다. /중부취재본부=최승철·김용호기자



"올해도 만선되소서" 신안 전장포 풍어제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어촌계는 18일 전장포항에서 올해 풍어와 어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지냈다. 풍어제는 매년 설과 정월 대보름 사이 기간중 길일을 택해 치른다.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어촌계는 18일 전장포항에서 올해 풍어와 어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지냈다. 풍어제는 매년 설과 정월 대보름 사이 기간중 길일을 택해 치른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6개 업체, 나주·화순에 700억 투자

㈜엠엔에프씨 등 전남도와 협약... 피혁공장 등 건립

전남도는 18일 ㈜엠엔에프씨, ㈜파이노레스트 등 6개사와 나주시와 화순군에 총 7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엠엔에프씨는 나주 일반산업단지 5만㎡ 부지에 200억원을 들여 합성 피혁제품 제조공장을 건립, 국내외 우수업체에 납품하고 합성 피혁제품 연구를 통한 차량용 시트 등 신제품 개발도 추진한다.

㈜파이노레스트는 나주 남평읍 우산리 15만㎡에 130억원을 투자해 목재가공산업 특성화단지 조성하고 건축목재 가공·시공업체를 유치하고 지역을 목재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세계로산업개발은 나주 동수동 식품산업단지 1만㎡에 80억원을 투자해 식품산업 특화현대공장을 건립하고, ㈜우등은 나주 세지면 송재리 1

만㎡에 55억원을 들여 친환경 원료를 이용한 완전배합사료(TMF)와 양반사료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한화는 화순 한천면 오음리 8만9천851㎡에 200억원을 투자해 이종(異種) 금속을 서로 접합시키는 폭발압접 공장을 건립한다.

㈜글로벌에스엠티는 화순 이양농공단지 6천㎡에 33억원을 투자해 전자기기와 LED-TV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y@

무안 회산백련지에 '수생식물 생태관' 건립

동양 최대규모의 백련 자생지인 무안군 일모읍 회산백련지에 '수생식물 생태연구관'이 세워진다.

무안군은 총사업비 8억여 원을 투입해 오는 6월말 준공목표로 지상 1층, 건축면적 490㎡ 규모의 '수생식물 생태연구관'을 추진한다.

수생식물 생태연구관은 국내외에서 자생하는 수생식물과 다양한 연못을 전시하고 유전적 가치가 우수한 품종의 산업화를 연구하는 전문 공간 역할을 하게 된다. 타원형 유리온실 형태의 외형과 함께 햇빛 투과율이 높

은 불소필름과 수조내 온수시스템, 관수시설, 방·난방시설 등을 갖춰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된다.

무안군은 생태연구관이 세워지면 관광객들에게 백련과 관련한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보다 새로운 생태체험 관광지로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회산백련지는 무안군 일모읍 북동리 회산마을에 있는 둘레 3km, 면적 33만㎡의 연못으로 매년 '대한민국 연산업축제'가 열리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완도 농어촌 개선사업 착수

9억 들여 군외·중리지구 등

완도군이 올해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완도군은 올해 정주여건 확충사업 대상면인 군외면에 불복지구 도로정비, 중리지구 세전정비 등 6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비 9억4천700만원을 투자하기로 확정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중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진행중에 있으며, 주민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또 공사추진시 견실시공을 위해 마을이장을 명에 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책임있는 담당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1991년부터 농촌 정주여건 확충사업을 추진해 생활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재해예방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해남고구마, 유럽인 입맛에도 '딱'

獨·英 시작으로 올 100t 수출 계획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해남 고구마가 올해 100t 수출 벼를 돌파할 전망이다.

해남군은 "지역 특산물인 해남고구마 18t이 오는 22일과 25일 부산항을 통해 독일과 영국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100t 이상을 유럽으로 수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해남 고구마는 지난 2008년 네덜란드에 9t이 첫 선적된 이후 지난해 280% 증가한 25t이 독일과 영국, 싱가포르 등에 수출된 효자 상품이다.

현재 포장 선별작업 중인 고구마는 바닷바람과 기름진 황토 속에서 지난 일명 '황토 고구마'로 해남군은 지난 2008년 '해남 고구마'라는 명칭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쳤다.

해남고구마는 삶았을 때 맛이 더 달고 담백해 생채로만 고구마를 먹는 유럽인들의 조리문화까지 바뀌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특히 이번 수출은 지난해 11월 크리스마스 특판용으로 9t이 처음 독일과 영국에 선보인 뒤 곧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판로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굳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군과 해남고구마 산자협회는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100t 이상의 해남 고구마를 올해 유럽에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현지 수입업체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김홍식 해남군수는 "맛은 물론 가격 경쟁력도 탁월해 유럽 국가들의 수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참바늘버섯' 抗당뇨효과 탁월

산림자원연구소

기능성분이 많은 참바늘버섯(참바섯)의 인공재배기술 개발에 이어 항(抗)당뇨효과가 입증됐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소장 박화식)는 참바섯의 약용개발을 위한 연구에 힘써 1년여 연구 끝에 최근 참바늘버섯의 항 당뇨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맛과 향이 좋아 주로 미식가들이 찾는 참바늘버섯은 자생지인 일본에서도 재배가 어려워 야생 채취에만 의존해 왔으나 산림자원연구소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인공재배 방법을 개발해 주목받



기도 했다.

연구팀은 당뇨병을 유발하는 물질인 인터류킨(Interleukin-6)을 이용한 참바늘버섯 추출물의 항당뇨효과 평가에서 추출물이 항당뇨성 약품용어에 알려진 '메트포르민'과 비교시 100ppm에서 77%의 항당뇨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윤기자 dok2000@

전남대 교육원 수강생 모집

합평캠퍼스 다음달 7일까지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합평캠퍼스는 다음달 7일까지 2010학년도 1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학기에는 신설된 노인상담교육 전문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과 북아트 전문지도사, 패치워크 퀼트 과정과 유리공예, 한지공예, 사진촬영 등 총 6개 과정이 개설된다. 수강신청은 합평캠퍼스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수강료를 제외한 교재, 재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강의는 합평캠퍼스내 예견초등학교강에서 진행된다.

지난 2005년 개원한 전남대 평생교육원 합평캠퍼스는 현재까지 총 61개 과정에 1천64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효상공인중개사' (Efficient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T.062-376-4056 and H.010-3128-1515. Features include '임야(농장,묘지적합)', '나주,봉황 3,730평', and '매가 1억3천만원'.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바다공인중개사' (Sea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063)581-5909 and (010)-8004-5900. Features include '팬션건물(투자,직영,임대)', '대지 300평 건물 140평', and '투자용 팬션 단지'.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Premium Country House Sale) with contact info (063)223-1772. Features include '대지: 250평', '건평: 73평', and '주거1층, 지상2층(복합)'.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Daedong Sangil Real Estate) with contact info (063)223-1772. Features include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만' and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National Law Auction) with contact info 062)364-8700. Includes multiple tables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